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0. 31(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중동 할랄시장 개척과 기업유치 발품 두바이 할랄기업 알삼쓰사와 통상협력 협약(MOU)체결 글로벌 투자기업 발굴, 두바이 도시개발현장 방문	국제통상과	 사진 별첨
② 경북도,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할 미래생활 속에 하천이 가지는 가치의 재정립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변화에 대응 논의	하천과	사진 별첨
③ 2019 경북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직거래장터 개최 11.1~11.3.(3일간), 대백프라자, 21개시군 105점 출품	친환경농업과	사진 별첨
④ 경상북도,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발전방향 제시... 세계 최초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 31일 구미 금오테크노밸리에서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비전 선포식 개최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⑤ 경상북도, 삼성전자와 마주 잡은 손 경북창조혁신 창업펀드 120억 조성 경북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 지속적 발굴·육성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5년부터 19년 현재 75개사 육성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⑥ 경북형 청년정책 모델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비전 제시 '19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청년 눈높이의 종합패키지 정책으로 '청년이 행복한 경북' 조성 기대감 고취	일자리청년 정책관	사진 별첨
⑦ 경북도, 돼지 자돈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반입반출 허용! 10.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반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양돈농장 운영난 해소 11.1일부터 8일간 돼지자돈 경기(일부), 충청, 호남, 제주지역 이동 가능	동물방역과	
⑧ 경상북도, 나만의 감각으로 작품이 되다... 세상에 없던 경북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개최	관광정책과	사진 별첨
⑨ 경북도, 세포배양 소재산업육성을 위한 토론회의 장 마련 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 「제1회 세포배양 배지 심포지엄」 개최 바이오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전략 수립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 별첨
⑩ 우리 마을 평생교육은 내 손으로! 경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례공유, 활성화 방안 토론	교육정책관	사진 별첨
⑪ 경북도, 문화관광자문위원회와 관광활성화 방향 모색 31일 도(道)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 제2차 회의 가져 -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현장 방문, 다양한 발전 방안 제시	문화예술과	사진 별첨
⑫ 경북소방본부, 화재 오인행위 반드시 신고하세요!! 화재예방조례 개정.. 논발 인근 불 파울 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소방본부	
⑬ 경북도내 농업인, 스마트 시대 농사도 스마트하게! 도농업기술원, 29일부터 3일간 경북도내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 실시 버섯, 딸기, 토마토 등 지역 전략품목 위주 스마트팜 모델 확산 기대	농업기술원	사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자	과장	박노선		
			팀장	김광훈	주무관	이승하
		연락처	054-880-2734			

이철우 도지사, 중동 할랄시장 개척과 기업유치 발품

- 두바이 할랄기업 알삼쓰사와 통상협력 협약(MOU)체결 -
- 글로벌 투자기업 발굴, 두바이 도시개발현장 방문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상북도 대표단은 방문 첫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이틀간 할랄기업과 글로벌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통상확대와 기업유치활동을 벌이고 풍부한 오일머니로 대규모 도시건설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도시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대표단 일행은 아랍에미레이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하여 아이티(IT)분야 창업과 보육을 통한 기업경영, 연착륙까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크립토 랩스(Krypto labs)사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경북 스타트업 기업 지원방안도 같이 논의했다.

동사는 각국의 스타트업기업에 교육, 창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 스위스, 독일 등 각국 기업, 세계 11개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항공, 드론, 교육 소프트웨어는 물론 연구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한국인 기업이 수주하여 건설중인 도시개발 현장을 찾았다.

제벨알리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여 모하메드 알 루타 대표와 면담하고 제벨 알 프리존의 포항 영일만항 투자방안과 향후 동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동 경제자유구역은 5,700만㎡의 규모로 항만과 공항이 30분내 연계시

키고 152개 국가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340여개의 물류회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벨알리항은 연간 1억 컨테이너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금융, 물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 구역의 제벨알리항 초기 건설에 현대건설이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2030년까지 140억달러를 투입해 14단계로 확장공사를 실시중에 있다.

또한, 쌍용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팜쥬메이라 리조트 건설사업은 16천여 객실 규모로 1조 3천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호텔 건설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등 경북의 대형 개발프로젝트에도 참여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도시인 두바이 할랄시장을 돌아보고 할랄 식품 수입회사인 알삼쓰(AL SHAMS)와 할랄식품 통상확대 협력 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경북의 할랄식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알삼쓰사는 아랍에미레이트내에 200여개의 유통망을 가지고 경북에서 생산되는 쌀, 신선야채 등 매년 20만달러 상당을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붐을 타고 한국의 신선한 농식품 수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세계적으로 할랄인구는 17억명에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에서 화장품, 의약품, 물류 등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을 방문하여 최근 중동지역 개척을 통한 통상확대방안과 글로벌 기업과 풍부한 오일머니로 경북의 호텔, 리조트분야 등 자금유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중동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포스코, 에스케이(sk)트레이딩 등 기업관계자를 비롯하여 코트라 중동본부장 등 1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기업인 경제간담회를 열고 통상확대, 기업유치 등

협력을 당부 하고 중동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중동 방문을 통해 10년전과 비교하여 눈부시게 발전하였음을 실감하였으며 앞으로 신흥시장으로 부각한 중동지역에 할랄식품 등 통상확대와 자금유치 등에 시동을 걸겠다” 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현장 등을 둘러보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들을 접목시켜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하천과			
		과 장	최 정 우			
	연 락 처	작 성 자	팀 장	박준로	주무관	권종협
		054-880-4075				

경북도,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포럼 개최

-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할 미래생활 속에 하천이 가지는 가치의 재정립 -
-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변화에 대응 논의 -

경상북도는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한국하천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업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는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방승우 하천협회장,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부회장, 최홍식 응용생태공학회장, 장식환 한국하천복원네트워크의장, 김진욱 도의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 하천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할 미래생활 속에 하천이 가지는 가치의 재정립 ▲미래 생활형 인프라 속에 함께하는 하천 관리방안 모색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 하천관리 방안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변화에 대응 등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는 미래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고려한 방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물순환 사업들을 살펴보고 이들 사업이 주는 도전적 기회와 그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국내에서 물순환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바람직한 중소하천관리 방안에 대해 중소하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하천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규창 한국하천협회 감사는 하천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하천사업추진방향 대해 새로운 하천사업 발굴로 하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홍보 등을 발표하면서 하천예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토론에서는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북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패널토론에서 미래 지향적인 하천관리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하천협회의 하천사진 전시회와 건설관련 기업을 홍보하는 전시홍보부스도 부대행사로 열려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다.

그동안 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하천 359개소 4,179km에 대하여 연간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세계 문명과 도시의 발전은 하천과 함께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 이번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 하천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하천 관리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 포럼 행사계획

- ❖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할 미래생활 속에 하천이 가지는 가치의 재정립
- ❖ 미래 생활형 인프라 속에 함께하는 하천 관리방안 모색 필요
-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하천관리 방안 모색

■ 행사계획

- 일 시 : 2019. 10. 31(목) 14:00 ~ 17:00
- 장 소 : 동락관 일원
- 주 제 :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
- 주 최 : 경상북도
- 주 관 : 한국하천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참가인원 : 1,000여명(도사군 하천협회수자원학회 건기원 설계사공등 관련업체)

■ 주요행사

- 기념행사 : 기념식/기조연설 - 경북대 한건연 교수
- 전략포럼 :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미래정책 포럼
 - 발제1 : 물순환촉진형 친수계획 - 단국대 강부식 교수
 - 발제2 : 바람직한 중소하천관리 방안 - 건기원 김원 박사
 - 발제3 : 하천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하천사업추진방향
 - 하천협회 오규창 감사
- 부대행사 : 하천사진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환담 및 입장	
14:00 ~ 14:20	20'	기념식(개회사,축사)	협회장, 행정부지사
14:20 ~ 14:40	20'	기조연설	경대 한건연 교수
14:40 ~ 15:00	20'	발제 1	단국대 강부식 교수
15:00 ~ 15:20	20'	발제 2	건기원 김원 박사
15:20 ~ 15:40	20'	발제 3	하천협회 오규창 감사
15:40 ~ 16:00	20'	Break Time	
16:00 ~ 16:50	50'	패널 토론	
16:50 ~ 17:00		종합토론	

■ 토론계획

구 분	역 할	성 명	소 속	비 고
포럼	발제1	강부식	단국대 교수	
	발제2	김 원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수자원관리위원
	발제3	오규창	(주)이산	하천협회 감사
	좌 장	한건연	경북대 교수	
	패 널	방승우	(주)도화엔지니어링	하천협회장
		유철상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부회장
		최홍식	상지대 교수	응용생태공학회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	한국하천복원네트워크의장
		안종석	국토부	사무관
		강 철	행정안전부	사무관
		김진욱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성자	과장	홍예선		
			사무관	백승모	주무관	안영미
		연락처	054-880-3364			

2019 경북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직거래장터 개최!

- 11.1.~11.3.(3일간), 대백프라자, 21개시군 105점 출품 -

경상북도는 ‘제16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직거래장터’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구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에서盛大하게 열린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는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평가와 농가시상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수 친환경농산물 특별전시·홍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도내 21개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갖은 태풍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성들여 재배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친환경농산물 105점(곡류 11, 과일류 21, 채소·특작류 41, 버섯류 15, 가공식품류 17)이 출품되었으며, 전문 심사위원들이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 당도, 외관, 식미분석, 영농일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농가를 선발·시상하게 된다.

입상한 농산물과 출품농산물은 특별 홍보관에 3일간 전시하여 대구 소비자들에게 경북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직거래 등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도는 행사분위기 고조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곡류, 과일류, 버섯류, 유기가공식품류, 김장재료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장을 찾은 도시민에게 특별 판매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품평회에 출품한 우수농산물을 현장에서 경매하여 수익금을 대구지역 복지시설에 친환경농업인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경북도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식용곤충제품과 꽃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미래생명산업으로 관행농업에 비해 노력과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기회가 적어, 매년 열리는 품평회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힘들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19년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판매행사

- ❖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 분위기 조성 및 우수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축제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1. 1.(금) ~ 11. 3.(일), 3일간
- ※ 개막행사 : 11. 1.(금) 11:00
- 장 소 : 대백프라자 야외주차장(대구 중구 명덕로 333)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72, 자부담 8)
- 주 관 : (사)경상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참가인원 : 5,000명 정도
- 내 용 :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우수작 전시·판매행사 등

■ 주요일정

- 11. 1.(금) : 개막행사, 출품농산물 심사
- 11. 2.(토) :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 이벤트행사 등
- 11. 3.(일) : 시상식, 부대행사 등

■ 시간계획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11.01.(금) 11:00	◦ 개막식, 테이프커팅 * 출품 농산물 심사(09:30~12:00)	홍보관 운영
	11.03.(일) 15:00	◦ 시상식	5개 분야(16명)
친환경농산물 전 시	11.01. ~ 11.03.	◦ 출품 및 수상농산물 전시 (130여점)	부대 행사
우수농산물 판 매	11.01. ~ 11.03.	◦ 김장재료, 과실, 곡류, 채소·특작, 가공품 등	“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장	이장준			
			팀장	김영환	주무관	김동근	
		연락처	054-880-2480				

경상북도,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발전방향 제시.. 세계 최초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

- 31일 구미 금오테크노밸리에서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비전 선포식 개최 -

경상북도는 31일 구미시 금오테크노밸리에서 전우현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국회의원(백승주, 김현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비전 선포식은 지난 3월에 최종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5세대이동통신(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과 뒤이어 5월에 선정된 ‘5세대이동통신(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계기로 경북지역의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5세대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및 발전방향도 제시되었다.

한편 5세대이동통신(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국제 이동통신 표준(3GPP)과 주요 이동통신사의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 계획에 맞춰 5세대이동통신(5G) 엔에스에이(NSA, Non Stand Alone) 및 5세대이동통신(5G) 에스에이(SA, Stand Alone)등 5세대이동통신(5G) 시험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2세대이동통신(2G)~5세대이동통신(5G) 전 세대 시험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

로,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5세대이동통신(5G) 기반 연동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됨으로 융합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 기간이 최소 5주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8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NSA(Non Stand Alone) : 4G와 5G 서비스 공존 운영(초고속, 대용량)

* SA(Stand Alone) : 5G 서비스 단독 운영 (초고속, 대용량, 저지연, 초연결)

또한,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신규 선정된 5세대이동통신(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시대에 중소기업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5세대이동통신(5G) 핵심기술 개발사업[5세대이동통신(5G) 기반 핵심부품 및 기술인 5세대이동통신(5G) 안테나, 5세대이동통신(5G) 공유기, 원격조종, 환경 센싱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5세대이동통신(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5세대이동통신(5G) 테스트베드 경과보고,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동영상 상영, 비전선포 세레모니 등이 진행되었고, 2부 행사에서는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기업협의체 공식발족을 위한 총회도 개최됐다.

5세대이동통신(5G) 이동통신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품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 참 가 기 업 >

연 번	기 업 명	전 시 제 품	소 재 지
1	온페이스 SDC	VR 헤드셋	구미
2	선테크	스마트 헬멧	구미
3	포인드	인공지능(AI) 솔루션(안면인식)	구미
4	와이즈드림	통합관제 솔루션(CCTV)	구미
5	형제파트너스	전기운반차용 디스플레이	구미
6	월드시스템	IOT 디바이스(센서, 중계기)	구미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경북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 비전선포식 개최를 통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5세대이동통신(5G) 융합산업을 선도하고,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경북지역의 5세대이동통신(5G)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경북 5G 융합산업 비전 선포식


- ❖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최종선정을 계기로 경북지역에 4차산업시대의 핵심인 5G를 기반으로 5G융합산업 집중 육성
- ❖ 5G 테스트베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및 발전방향 제시

I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10. 31.(목) 14:00 ~ 16:00
- 장 소 : 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 주 최 : 경상북도, 구미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주 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참 석 자 : 200여명 (국내외 ICT관련 산, 학, 연, 관 전문가 등)
※ 경제부지사, 구미시장, 구미 국회의원(백승주, 김현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등
- 주요내용
 - 경북 5G 융합산업 육성 경과 보고 등
 - 경북 5G 융합산업 비전 선포 세레모니 등

II 행사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공식행사	14:00~14:07	○ 내빈입장 및 오프닝	• 티타임 (13:50 ~ 14:00)
	14:07~14:10	○ 기념촬영	
	14:10~14:25	○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 경제부지사, 구미시장 • 국회의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4:25~14:35	○ 5G 테스트베드 경과보고	
	14:35~14:40	○ 비전 선포 세레모니	
	14:40~15:00	○ 부스 및 인프라 투어	
	15:00~16:20	○ 경북 5G 기업협의회 발족식	
제품전시	13:00~16:00	○ 5G 이동통신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품전시 부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0. 31(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강은희	주무관	이기주
		연 락 처	054-880-2423			

경상북도, 삼성전자와 마주잡은 손 경북창조혁신창업펀드 120억 조성

- 경북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 지속적 발굴·육성 -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5년부터 19년 현재 75개사 육성 -

경상북도는 3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삼성전자와 '20년부터 3년간 60억원씩 출자해 1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경북창조혁신창업펀드 협약식'을 가졌다.


이 펀드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스타 드리머(G-Star Dreamer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펀드로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가진 경북소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스타 드리머(G-Star Dreamers)은 창업보육 프로그램으로서 우수 창업기업 발굴 후 펀드 지원은 물론 국내외 외부 투자유치 지원과 삼성맨들로 구성된 전담 멘토단을 통한 기술 지원, 20여명의 전문컨설팅 멘토단 지원, 국내외 데모데이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사) 참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혁신센터 연계사업 참여 지원도 받게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도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하여 경북창조혁신창업펀드 1호를 조성·운영하였고, 이번에 다시 2호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1호 펀드는 '19년 10월 현재 총 75개사를 발굴·보육하였으며, 하드웨어분야 기업에 72.9억원, 소프트웨어분야 기업에 43.4억원 농식품분야 기업에 14억원, 뷰티분야 기업에 2.5억원, 기타 분야에 8억원으로 펀드자금 약 141억원이 투자되었다.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1호펀드에 이어 2호까지 이어진 삼

성전자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 지역의 창업·벤처 기업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준 경북창조혁신창업펀드 1호의 성과를 바탕으로 2호 또한,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역 성공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0. 31(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연 락 처	팀 장	장미정	주무관	최유복
			054-880-2755			

경북형 청년정책 모델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비전 제시!

- '19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청년 눈높이의 종합패키지 정책으로 '청년이 행복한 경북' 조성 기대감 고취 -

경상북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23개 시군 팀장,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청년정책 모델인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의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시군별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와 활동 인프라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까지 아우르는 청년특화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핵심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19년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주)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안동) 청년 문화마켓 지원 ▲(경산) 와이-스타(Y-Star) 프로젝트, 청년 희망팩토리 등 3개 시, 4개 사업의 추진 계획 보고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는 도시재생구역내 청년 창업특화 공간 조성과 지원, '청년 문화마켓 지원사업'은 시장내 작은 미술관 등 청년친화환경 조성과 청년상인 성장 지원, '와이-스타(Y-Star) 프로젝트'는 청년밀집 지역을 활용한 청년 문화거리 조성 and 융합콘텐츠 양성, '청년희망 팩토리'는 청년 희망아지트 구축과 지역희생 청년원정대 파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모두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는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의 기본방향 수립과 지역별 기초 조사 및 잠재력 분석, 지역청년 선호도 조사,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과 연계한 지구별 대표사업 발굴, 정책과제 시행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등 전체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은 지역의 핵심 자원이다. 경북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문화와 복지에도 집중하겠다” 며 “외부 청년 유입과 지역 청년이 성장하고 머무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19년 시범사업 추진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보고서 개요

- 일 시 : 2019. 10. 31(목) 14:00 ~ 15:30
- 장 소 : 경북도청 화랑실(254호)
- 참석인원 : 50명 정도(道, 23개 시·군, 대학, 대경연, 용역기관 등)
 -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시·군 청년정책 팀장, 연구기관 등
 - ‘19년 시범사업 발표(4개 사업*, 대학·공공기관 등)
 - * 경주(청년신골든창업특구), 안동(청년문화마켓지원), 경산(Y-Star, 청년희망팩토리)
- 주요내용
 - ‘19년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연구용역 계획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 개요

- ▶ 용역명 :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수립 연구용역
- ▶ 용역기간 : 2019. 10월 ~ 2020. 6월(8개월)
- ▶ 용역비/기관 : 113백만원(도비) / (사)한국능률협회

■ 시간계획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14:10~14:40	30'	▶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3개 시(4개 사업)
14:40~15:05	25'	▶ 용역 착수보고	용역수행기관
15:05~15:30	25'	▶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15:30~	-	▶ 마무리 및 폐회	

 경성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작성 자	과 장	김 규 섭		
			팀 장	권오성	주무관	김정일
		연 락 처	054-880-3447			

경북도, 돼지 자돈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반입·반출 허용!

- 10.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반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양돈농장 운영난 해소 -
- 11.1일부터 8일간 돼지자돈 경기(일부),충청,호남,제주지역 이동 가능 -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생에 따라 선제적으로 타 시도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반입반출금지돼지 등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가운데 10.9일 연천발생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돈 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돼지 자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1.1일 0시부터 11.8일 24시 까지 (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감수성이 없는 축종인 소 이동은 11.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돼지 자돈 반출은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송 차량에 대한 조건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하여 철저히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2건을 받아서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진입로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자돈 분양 및 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돈산업 사수를 위해 장화 갈아신기, 손 씻고 축사 들어가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주 요 내 용 》

◆ (경기일부* · 충청권 · 호남권, 제주) 돼지 자돈 이동 한시적 허용

- 기간 : 2019. 11. 1.(금) 00:00 ~ 11.8.(금) 24:00 까지(8일간)

* 도내 3개 농장에 대해 경기(안성, 용인, 여주) 로 이동 허용

◆ 소 이동 전면 허용

- 기간 : 2019. 11. 1.(금) 00:00 ~ 별도 조치시 까지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문 환		
			팀 장	이종익	주무관	김진영
		연 락 처	054-880-3195			

경상북도, 나만의 감각으로 작품이 되다...

- 세상에 없던 경북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개최 -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만의 감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세상에 없던 경북’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은 경북의 다양한 문화 자원과 콘텐츠들을 최근 홍보트렌드에 맞춰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라는 콘텐츠를 나만의 관점으로 사진, 영상, 페인팅, 일러스트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나만의 스타일로 경상북도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참여방법은 필수 해시태그 (#세상에없던경북, #3대문화권, #경북여행)와 함께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구글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편(1,000만 원), 최우수상 1편(300만 원), 우수상 2편(각 100만 원), 총 4편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1,500만 원이다.

수상작은 2020년 1월 17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한다.

또한, 수상작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파워 있는 여행커뮤니티 채널 및 유튜브 채널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나드리:경북관광공식사이트 (tour.gb.go.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부섭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이라는 소재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이지숙	주무관	강상곤
		연 락 처	054-880-2432			

경북도, 세포배양 소재산업육성을 위한 토론회 장 마련

- 영남대 세포배양연구소 「제1회 세포배양 배지 심포지엄」 개최 -
- 바이오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전략 수립 -

경상북도는 31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 의성 세포배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포배양 배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세포배양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세포배양 배지 산업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배지(培地, medium) 사업 현황 ▲백신 생산용 배지 ▲줄기세포용 배지라는 3개 분야로 나눠 국내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의성 세포배양 산업 허브 구축에 대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세포배양은 동물의 세포를 체외에서 키우는 것이며, 배지는 세포를 키우기 위한 핵심 성분으로 최근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시장의 급성장으로 핵심 소재인 배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 바이오의약품 전체시장규모(‘17→’23) : 2,706억달러(306조원)→4,420억달러(500조원), CAGR 8.6%
- * 국내 세포배양 배지시장 약 3천억원 추산 : 연구용(500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용(2,500억원)

경상북도는 의성군과 함께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세포배양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90억원, 도37, 군53)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에서 사업화를 위한 세포배양 배지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세포배양 배지 기업인 (주)큐메디셀(대표 류동우)과 수도권에 있는

세포배양 장비 기업인 (주)이셀(대표 김두현)이 의성군에 조성되는 단지에 입주하여 국내 최초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배양 배지와 이를 보관, 저장 및 의약품생산에 사용하는 특수 백(Bag)을 생산 준비 중이다.

이장준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세포배양 소재 산업의 동향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제1회 세포배양 배지 심포지엄 계획(안)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31.(목) 09:30 ~ 17:00
- 장 소 :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사파이어홀
- 참석인원 : 100명 정도(道, 의성군, 지역 R&D 기관 등)
 - ※ 주요참석자 - 道 과학기술과장, 의성군수, 임미애 도의원, 영남대학교 총장
이재훈 경북TP 원장, 이택관 경북바이오원장, 김태일 KBS이사
- 주요내용 : 세포배양 배지 산업 최신동향 및 발전방향 등

□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05~10:25	20'	▶ 인사말씀 (영남대 총장, 경제부지사, 의성군수)	
10:30~12:00	90'	▶ 1st Session : 배지산업근황 (좌장 : 최정두 본부장) · 세포배양 전략산업 육성 추진 방안(의성군) · 세포배양 배지 산업 국내외 현황(주)큐메디셀) · Innovation and Trend in Cell Culture Manufacturing Industry (주)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김태회 과장 문익재 박사 신용남 수석
12:00~13:00	60'	▶ 중식	
13:10~14:30	80'	▶ 2nd Session : 백신 생산용 배지 (좌장 : 이용호 교수)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역할과 미래방향 · Cell Culture Vaccine Development Strategies from concept to human use (주)GC 녹십자)	장양석 센터장 김수인 박사
14:30~15:00	30'	▶ 휴식	
15:00~16:20	80'	▶ 3rd Session : 줄기세포용 배지 (좌장 : 한성수 교수) · 줄기세포치료제 배양 공정의 산업동향 (주)차바이오텍 · 안전하고 간소화된 줄기세포 배양 시스템 (주)메디칸)	유지민 박사 이희영 대표
16:20~17:00	40'	▶ 종합토론	
17:00~		▶ 폐회, 만찬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0. 31(목)】	담당부서	교육정책관			
		작 성 자	과 장	배 성 길		
			팀 장	최정애	주무관	이상미
		연 락 처	054-880-4571			

우리 마을 평생교육은 내 손으로!

- 경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례공유, 활성화 방안 토론 -

경상북도는 3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도내 각 지역에서 평생학습 리더로 활동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통해 마을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주제로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주도 평생학습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의 역할, 수요자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그동안의 활동성과에 대한 구미 등 4개시군 우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액션러닝*을 활용한 분임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활성화 방안’의 열띤 토론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주민주도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액션러닝(Action Learning) : 팀단위로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 적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학습하는 실천학습. 영국의 레그레번교수가 개발한 경영기법.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기본단위로 마

을공동체 복원을 주도하고,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가는 주민 리더로, 2009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마을주민의 학습욕구 해소와 마을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부족한 부분을 통해 어떻게 발전시켜야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배성길 경상북도 교육정책관은 “내 마을의 발전이 곧 경북의 발전을 이끈다” 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 도에서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더불어,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 및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등 마을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개요

- 일 자 : '19. 10. 31.(목) 11:00
- 장 소 : 안동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150여명(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및 시군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시군 우수사례 발표, 특강, 활성화방안 토론 등

<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

- ◆ 마을평생교육지도자 : 2009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마을평생학습리더과정 수료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기본단위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주도하고,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가는 주민리더를 일컫음
- ◆ 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2010.1.12.구성) : 23개 시군, 1,786여명
- ◆ '19년 예산 : 98백만원
 - 경상북도평생교육네트워크활성화지원(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 33백만원(도30, 자부담3)
 -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활성화 지원(8개 협의회, 24백만원), 역량강화워크숍(8백만원) : 32백만원
(※ 8개 협의회 : 포항,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의성, 예천, 울릉)
 - 비활성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6개 시·군) : 33백만원(도30, 자부담3)
(※ 6개 시군 : 영천, 문경, 경산, 청송, 예천, 봉화)

시간계획

시 간	(분)	행 사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개회식 - 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 환영사 : 진흥원장 · 축 사 : 道(정책관)
11:10 ~ 12:30	80	· 마을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	· 시군협의회 (구미, 영주, 영천, 경산)
12:30 ~ 13:30	60	· 오찬	
13:30 ~ 14:20	50	· 특강 -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김창원 대표 (에듀큐 모더레이터)
14:20 ~ 14:30	10	· 휴식	
14:30 ~ 17:00	150	· 토론 - 액션러닝을 활용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활성화방안	이성아 교수 (금호공대)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 자	과 장	한 재 성		
			팀 장	김대식	주무관	배영자
		연 락 처	054-880-3112			

경북도, 문화관광자문위원회와 관광활성화 방향 모색

- 31일 도(道)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 제2차 회의 가져 -
-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현장 방문, 다양한 발전 방안 제시 -

경상북도는 3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장 : 이응진 동북아관광협회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10개 분과, 142명의 교수·도 의원·전문가·기업가·일반 도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화관광분과는 문화관광활성화, 체육분야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문화재단 출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설립 추진,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 제101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경북도서관 개관 등 문화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제언을 겸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경북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 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를 마친 후 술거미술관, 경주타워, 기획 전시관, 공연 등 2019세

계문화엑스포 개최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오늘 회의와 엑스포 개최 현장 방문시 제시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고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 자	과 장	김 진 욱		
			팀 장	민병관	주무관	김택한
		연 락 처	054-880-6212			

경북소방본부, 화재 오인행위 반드시 신고하세요!!

- 화재예방조례 개정!!!.. 논발 인근 불 파울 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10월 31일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이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정됐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했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0. 31(목)】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성자	과장	이상택		
			팀장	고대환	주무관	손미영
		연락처	053-320-0246			

경북도내 농업인, 스마트 시대 농사도 스마트하게!

- 도농업기술원, 29일부터 3일간 경북도내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 실시 -
- 버섯, 딸기, 토마토 등 지역 전략품목 위주 스마트팜 모델 확산 기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서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스마트팜 설치 시범 농가 및 교육 희망 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최신 스마트팜 기술의 농가 이해를 돕고 버섯, 딸기 등 지역 전략품목에 대한 스마트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는 ▲버섯재배에 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찬중 박사가 버섯 스마트팜 적용 기술에 대한 교육과 ▲강원도농업기술원 이안수 연구사의 ‘느타리버섯 스마트팜 재배의 실제’를 주제로 균일한 성장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스마트팜 전용 버섯 재배사 개발의 필요성과 버섯 재배 환경관리 등 데이터 기반에 대하여 교육했다.

2일차는 ▲한국농수산대학 김승희 교수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수재배’에 대한 교육과 ▲‘과수원 스마트팜’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농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첨단 기술과 포도·사과 등 다양한 국내외 적용 사례를 한국네타팜 원성재 팀장이 소개했다.

3일차는 딸기 재배에 대하여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서범석 소장의 ‘딸기 스마트팜 사례와 활용 기술’ ▲웰빙그린딸기 안종균 대표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실제어’를 주제로 강연하여, 스마트팜의 구성과 시설구조, 환경요인, 재배시스템 등 스마트팜 전반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참외, 딸기, 토마토 등 314농가의 시설 온실에 스마트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그 면적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상택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설치 농가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희망 농가에는 쉽게 스마트팜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아울러 스마트 농업의 첨단 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